# “기복서 ‘문화향유’로…혁신 통해 불교 경쟁력 확보를”

**윤재웅 총장, 교수불자대회서**
**‘신팔정도 문화운동’ 제안해**
**언어 혁신 등 8대 혁신 제시**
**개막식서 종단 지도자들 축사**
**기후위기, AI 등 현안 논의**

진부=신중일 기자





▲윤재웅 동국대 총장이 교수불자대회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와 월정사는 6월 24~26일 월정사 일원에서 ‘2025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개막식 이후 진행된 기념촬영.

“대만불교의 특성이 ‘인간불교’에 있다면 21세기 한국불교의 미래 가능성은 ‘문화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6월 24일 평창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개막한 ‘2025 한국교수불자대회’ 기조강연에서 한국불교 미래가 ‘문화불교’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불교의 준비와 대승보살의 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현재 한국의 2030세대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2030세대들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과 복을 바라는 ‘대가 보상형’ 지불 대신에 마음의 안정과 심미적 쾌감을 위해 ‘문화 향유형’ 지불을 선택한다”고 분석했다.

“‘불교문화 팬덤’이라는 세대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밝힌 윤 총장은 “특정 종교의 선입견에 물들지 않은 젊고 순수한 문화 교양인들이 소비와 향유의 대상으로써 불교를 만나려 한다는 점은 한국불교 전법사의 지평 전환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불교의 미래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은 한국불교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길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과 〈님의 침묵〉에서 보인 ‘만해유신’에 찾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팔정도 문화운동’을 제시했다.

윤 총장이 제시한 ‘신팔정도 문화운동’은 한국불교가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한 혁신 방편으로 △언어 혁신 △문화 혁신 △구성체 혁신 △생활 혁신 △제도 혁신 △세대 혁신 △학술 혁신 △공공 혁신의 8대 혁신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윤 총장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불교’로의 혁신을 제언했다. 윤 총장은 “지금부터 1200년 전에 팔만대장경을 압골한 개념 디자인을 내놓았는데 지금도 이것보다 탁월한 식견을 찾기 어렵다. 5천만 글자도 다섯 글자로 줄여 보면 결국 ‘착하게 살자’라는 뜻이다”며 “이런 식으로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대중화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역 경전 한글화 작업은 업데이트 버전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젊은이들이나 초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절한 안내서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게 윤 총장의 제안이다.

기존 포교 문법을 신도들을 위한 기복불교에서 중생을 위한 ‘향유불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참선, 명상, 사찰음식, 불교문화유산 등의 체험은 미래세대들로 하여금 기복적 자세에서 벗어나 불교문화를 공유·공감·향유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한다”면서 “불교문화 콘텐츠 갖는 경쟁력을 믿고 중생의 내면에 잠든 불심을 깨우는 ‘문화불교’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회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열어야 한다”며 “출근 전·후, 토요·일요법회 등 현대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법회를 열거나 법당 내 의자 배치, 도심사찰 공간 현대화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 앞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월정사 주지 스님과 주요 종단 지도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단순한 학술 모임을 넘어 지금 한국불교가 어디에 서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묻고 함께 길을 찾아가는 대승적 실천적 자리”라며 “이 자리에서의 모든 인연과 나눔이 미래불교의 새로운 문을 여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환영사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인한 청년 세대의 절망, 기후 위기의 심화, AI와의 공존 문제, 전쟁과 분쟁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교수 불자들의 소명이 실로 지대하다. 학문의 언어로 대중과 사회를 연결하고, 불교의 지혜를 미래세대와 호흡할 수 있는 언어로 재해석하며, 강단의 진리를 삶의 현장으로 이끄는 다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불교의 준비와 대승보살의 길’을 주제로 열린 올해 교수불자대회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간 월정사 일원에서 진행됐다. 3일 간의 대회에서는 웰다잉, 생명윤리, AI, 생태명상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 10편이 발표됐으며, 이번 대회는 한국불교가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왔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모색했다.

6월 25일에는 ‘대학생·청년 전법 특별 세션’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 출신으로 15세에 대만 불광산사에서 출가해 서울 불광산사 주지 소임을 하고 있는 혜호 스님을 초청해 ‘대만불교의 청년 전법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강연 뒤에는 유주연 대불련 회장, 이수연 대불련 숙명여대 지회장 등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청년 전법의 현실과 과제를 대학생 입장에서 토론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전통의 지혜와 현대적 자비,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법문을 했다.

# 오대산서 만난 정념 스님·불자 교수, 묻고 답하다

**교불련 주최 교수불자대회서 환영 차담 진행**

**교수들 불교 미래 진흥책 등 질의**
**정념 스님 “명상 지도력 필요”**
**한암 스님 등 오대산 가풍 소개도**


6월 24일 오대산 명상마을 수피타에서 열린 2025한국교수불자대회 환영 차담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불자 교수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제 한국불교는 새로운 시대 언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명상 수행을 축으로 한 공동체 기반의 신행운동, 연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생명 존중 가치 실천, 기후 위기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불교가 돼야 합니다.”

6월 24일 오대산 명상마을 수피타에서 열린 2025한국교수불자대회 환영 차담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밝힌 한국불교 미래 아젠다 중 일부다. 이날 차담에서 정념 스님은 신행과 수행, 한국불교 미래 진흥책 등에 대해 불자 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화엄경〉 속 보살행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정념 스님은 보살행의 핵심은 깨달음 이후의 실천에 있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깨달음이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보살행의 출발점”이라며 “깨달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민과 지혜로 세상에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분별심 속에 산다. 보살행은 분별심을 녹여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밝힌 정념 스님은 “집중과 통찰 수행을 통해 가슴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연민과 사랑, 공감이 바로 보살행의 근본”임을 거듭 강조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열매이며, 그것이 타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월정사 명상마을 기획과 구상에 대한 질문에는 “명상마을 조성은 단순한 공간 건립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춘 불교 수행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고 밝혔다.

정념 스님은 “2004년 주지로 부임하며 불교 수행과 전법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명상마을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수행과 교육의 장”이라며 “명상은 힐링을 넘어선 공동체적 실천이 돼야 하며, 명상을 통한 내면 치유와 사회적 연대의 회복이 이 시대 불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위기 상황인 한국불교의 미래 진흥책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정념 스님은 “큰 방법이 없다”면서도 ‘심플한 불교’를 방안으로 제안했다. 복잡하고 형식적인 전통보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간명한 수행 체계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념 스님은 틱낫한 스님을 예로 들며 “걷기 명상이나 간단한 호흡 수행을 통해서도 수백 명의 출가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수행이 삶과 밀착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상은 이제 시대적 필요”라며 “종교의 틀을 벗어난 영성의 시대에 불교는 명상 지도력과 수행 콘텐츠로서 다시 대중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념 스님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암·탄허 스님 등으로 이어지는 오대산 수행 가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암-탄허 스님으로 이어지는 오대산 법맥의 핵심이 ‘선교일치’에 있음을 강조한 정념 스님은 “선교일치, 즉 교학과 수행의 균형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불교의 핵심”이라며 “수좌는 경을 보고 강백은 좌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두 선지식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진부=신중일 기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부처님 법 공부**
석천사 진옥 스님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법륜의 사성제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 법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하였다.
진옥 설법, 범여 정리 및 교정/신국판양장/440쪽/값 28,000원

복장의식과 점안의식을 여법하게!
**제불보살복장점안의식**
전해오는 여러 의식들을 정리하여, 한문 원문과 한글음, 우리말 번역, 필요한 곳에는 설명까지 붙여서, 누구나 여법하게 의식을 거행할 수 있게 편집하였다.
원철 편저/사륙배판양장/464쪽/값 30,000원

서양 철학자와 동양 승려의 만남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서로 다른 전통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상가가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윤리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
피터 싱어 · 스자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신국판/284쪽/값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